

12월의 기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11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7년 1월 9일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축복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수,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정경자, 최인철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영원한 생명수 이신 예수님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공짜로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는 끝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으며 한이 없는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마른 자에게 끝까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생수를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겪어 본 사람은 외로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 은혜와 사랑과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되어 희망찬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ec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 보는 2016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해외성회



2016년 한 해에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성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2016년은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성회에서 시작되었다.

호주 서부 도시 퍼스의 최대 교회로 성장한 빅토리 라이프 센터(담임 마가렛 코트 목사)가 2월 2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성회는 빅토리 라이프 센터가 개최한 성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해 교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다음 날인 2월 24일 호주 시드니 C3교회(담임 필 프링글 목사)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C3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C3교회는 물론 시드니 등 호주 전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참석 대상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또 2월 25일에 C3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4월 6일과 7일에 축복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대성회가 대만 남단의 가오슝 시 가오슝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조용기 목사는

열두 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진 대만 현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성회가 인도 첸나이 최대교회인 뉴 라이프 교회(New Life Assembly of God Church)와 YMCA 대운동장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 강사로 6월 8~9일 양일간 개최됐다. 인도하나님의성회(총회장 데이비드 모한 목사)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지경을 넓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인도하나님의성회 8000여 교회가 하나되어 인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흥과 헌신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마카오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성회가 열렸다. 이번 성회는 DCEM에서 주관하고 마카오국제에스라사역중심협회와 마카오CBMC(기독실업인회)가 공동 개최한 것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인근 지역인 홍콩과 대만,

중국 본토에서 성회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참석했고, 상주하는 필리핀인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9월 19일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축복을 위한 일본성회 해피 콘서트’에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성회는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끼 시계 마사 목사) 주최하고 DCEM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EWPC(Evangel World Prayer Center)에서 열린 2016 CGI 컨퍼런스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였다. 교회성장 비결을 알기 위해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CGIA(Church Growth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복음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1~5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서 인간으로서서는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4차원적 해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를 하실 때, 그 축사 속에는 예수님의 바라봄의 법칙이 들어있었고, 믿음이 들어있었고, 창조적인 선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이 요란스러운 3차원의 소용돌이 위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위함이 처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차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는 당장 눈에 안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그 곳에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바람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3차원의 세계 위에 운행함으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죽음이 삶이 되고, 무에서 유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이 죽어 버린 육체로 3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 주시고 영을 살려 주셔서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함께 꿈을 꾸고, 믿음 속에서 함께 성령과 같이 믿음을 갖고, 창조적인 선언을 할 때 성령과 함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생각하는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꿈이요 환상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이요, 성령이 받아서 역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3차원 위에 4차원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4차원적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백부장이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청하는데, 부하가 뛰어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죽었다고 통곡하는 사람들 모두를 쫓아내 버리고 그 어린 딸을 붙잡아서 일으키니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4차원의 영성을 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위를 찬찬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나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암 병동에는 의사보다 간호사와 청소부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매우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나 청소부가 환자 병실에 들어와서 환자에게 “오늘은 얼굴색이 좋네요. 목소리에 힘이 있네요. 전에 계신 분도 이렇게 변화가 오더니 병 고침을 받고 나갔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긍정적인 마음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속에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꿈을 잉태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믿고 시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부족함으로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1. 먹이기를 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을 잘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인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시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반개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7)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을 한 빌립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적생활에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한정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믿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조용기 목사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기념성회’ 이모저모



인도 기독교역사는 1세기 12제자 중 한명인 사도 도마의 전도로 시작됐다. 도마는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 했다. 이곳에는 도마가 피신했던 기도처와 순교한 언덕, 그리고 무덤이 있는 도마기념교회 등 기독교 성지가 있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13억 인구 중 약 2.3%인 2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남부가 북부보다 많은 복음화를 이루고 있다.

인도하나님의성회는 1916년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첫발을 내디디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59만명의 목회자와 사역자, 40만개 이상의 교회, 그리고 전세계 241개국에 7000만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단으로 성장했다. 인도하나님의성회는 앞으로 2020년까지 2만 5000개의 교회 개척을

비전으로 성령안에서 전진하고 있다. 올해 2016년 인도하나님의성회100주년기념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강사로 초청되어 6월 8일 첸나이 최대교회인 뉴라이프교회에서 약 50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었다.

성회를 주최한 뉴라이프교회 데이비드 모한 목사의 소개에 이어 등단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세계최대의 교회로 성

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을 전하며 “신학교를 졸업하고 5명의 성도로 목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500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꿈꾸었고 그 결과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꿈꾸며 인생을 선포할 때 교회 성장과 인도복음화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회성장과 부흥의 비결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피력했다.

세미나 후 참석자들은 개인의 문제와 인도복음화를 위해 ‘주여 삼창’을 외치며 뜨겁게 기도했다. 텔리에서 참석한 기마 성도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특히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명 받았다. 앞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문제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번 성회에는 조지 우드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장과 오마르 베일러 하나님의성회 유라시아지역 감독 등이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P.S 라자모니, 이반 샤타야와타, 로버트 제이리지, V.T 아브라함 목사 등이 인도 전역에서 강사로 참여했다.

Merry Christmas

2016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성탄을 맞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기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드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總載 조 용 기 목사 趙 錫 基
事務總長 시기끼 시게미사 목사 S. SUGAMI